

<성경 번역사 자료>

내가 경험한 한글 성경 번역의 뒀안길¹⁾

박창환*

8.15 조국 광복 이전 194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나는, 남들이 별로 취미를 느끼지 않는 성경원어(헬라이어) 공부에 취미가 있었다. 김덕준 목사(일본 아오야마가꾸인<靑山學院> 출신)가 일본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던 허들스톤(Huddleston)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우리를 가르쳤다. 왜정(倭政) 말기이고, 소위 대동아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하느라, 대학생들을 근로 봉사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던 때이기 때문에 평양신학교 학생들도 뻘질나게 교실을 비우고 비행장을 정비하고, 포탄을 만들고, 소금을 굽는 등에 시간을 보냈다. 결국 학과 공부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헬라이어 과목도 하는 둥 마는 둥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는 중 나는 아버지의 서가(書架)에서 매첸(Gresham Machen)의 『신약성경 기초 헬라이어 교본』(*The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다니실 때 사용하던 교과서였다. 그 책은 헬리아어를 독습을 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얼싸 좋다 생각하면서 혼자서 그 책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문법을 익히고, 연습문제로 나오는 헬리아어를 영어로, 그리고 영어를 헬리아어로 번역하는 과제를 꼬박꼬박 다 풀어 나갔다. 결국 초보 헬리아어를 마친 셈이다. 남들은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왜 했는지 알 수 없다.

일본이 패전하고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38선으로 두 동강이 나고, 이북은 공산 치하에 들어가고, 종교 자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황해도 신학생인 나는 아버지의 권유를 받고 38선을 넘어와 서울 역전에 있는 조선신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조선신학

*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학장.

1) 이 글은 오랫동안 한글 성서 번역에 여러모로 이바지해 온 박창환 명예학장(1924년생)께서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의 부탁으로 기고한 글을, 글쓴이의 양해를 얻어 박동현 성경원문연구 소장이 다듬은 것이다. 한글 성서 초기 번역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여기에 실는다.

교는 남한 장로회총회가 정식으로 인가한 직영신학교이었다. 1946년 늦은 가을, 조선신학교에 편입한 나는 정대위 목사가 가르치는 헬라어 시간에 들어가 보았다. 헬라어 알파벳에서 시작하여 초보를 가르치고 있었다. 새로 배울 것이 별로 없었다. 그 때 조선신학교 건물은 일본 천리교(天理教)가 쓰던 집들을 불하 받아서 마련한 집들이어서, 학생 기숙사는 전혀 난방이 되지 않는 “다다미” 방들이었다. 나는 새벽 4시 경에 깨어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신약 원전을 사전에 뒤져가면서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서가에서 포켓 헬라어 성경을 발견하여 그것을 가지고 남하했던 것이다. 변변한 사전을 구할 수 없어서 수터(Souter)의 포켓 사전, 즉 의미가 하나 둘밖에 적혀 있지 않는 간단한 사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헬라어 성경을 한 장씩 읽기로 결심하고 시작했다. 약 8개월 만에 신약 원전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갔다.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어도 독습하기 시작했다. 나의 소망은 신구약 성경을 원어로 읽고 해득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1948년 6월에 장로회신학교가 신설되면서 제1회 졸업생 25명 중의 하나로 졸업한 나는 모교에서 성경원어(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 담당 전임 강사로 임명되어 신학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과도기 한국에 마땅한 교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호동중 리작호(無虎洞中 狸作虎, “호랑이 없는 고을에서 살쥍이가 호랑이 노릇을 한다”)의 격이라고 할까! 자격도 없으면서 큰일을 맡게 된 것이다. 1952년에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신학교 교장이신 박형룡 박사께서 나더러 이것저것 다 해 오라고 당부하셨다. 그 말을 나는 구약학과 신약학을 다 공부하라는 명령으로 알았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줄 알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능한 한 구약학 과목과 신약학 과목을 이것저것 많이 듣고 돌아왔다. 돌아와서 구약학 과목도 가르치고 신약학 과목도 가르치는 동시에 성경 원어도 가르쳤다.

유학에서 돌아온 다음 해인 것 같다. 장로회신학교 졸업생 중에 박 아무개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어쩌다가 그리스도 교단(Church of Christ) 목사가 되었고, 하루는 나를 찾아와서 제안했다. 자기가 “기독교계”라는 월간지를 내려고 하는데 매호 초두에 성경 새 번역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읽어오는 낡은 성경 번역(1911년판 구역과 1937년판 『성경개역』)이 젊은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서 성경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으니, 해방된 조

국에 걸맞게 성경을 새 말로 번역하여 주면 자기의 잡지에 신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흔쾌히 허락하고 바울의 옥중 서신을 번역하여 그 잡지에 실기 시작했다. 제2호부터는 김정준 박사의 시편 새 번역이 같이 실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잡지가 제4호로 폐간되고 말았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해방 후에 성경 번역이 항간에 시작된 셈이다. 연세대학교의 고병려 교수가 로마서 사역을 낸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 무렵에 서울에는 복음동지회라는 친목단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왜정 시대에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들과 여타의 몇몇 친구들이 동지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친목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와 김정준 박사와 고병려 교수가 성경을 번역한다는 소식을 접한 그들은(김정준 박사는 그 단체의 회원이었다) 자기들도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매 월요일에 모여서 마태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자기들 대부분이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헬라어를 다소 공부하였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떤 날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나더러 복음동지회에 가담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복음동지회는 대개 기독교장로회와 감리교 출신 엘리트들의 모임이어서 예수교장로회 사람으로서는 이영헌 목사 한 사람이 그 회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 요청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해서 나도 그 모임에 가담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번역하는 소수 팀의 한 사람이 되어 협력하였다.

바로 그 무렵에 대한성서공회가 항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경 새 번역 작업에 자극받아 발 벗고 나섰다. 얼마 동안의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 성서공회가 나에게 전담 초역자의 임무를 맡겨주어 1961년에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동시에 성서공회 전임 번역관의 일을 시작했다.

그 무렵에 복음주의 연합선교회(Team,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의 가필드(Garfield, 한국 이름 갈필도) 목사²⁾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 단체가 얼마 전에 청년찬송가를 발간하여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성경을 번역하여 인기를 얻을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더러 『신약성서 확장 번역판』(*Amplified New Testament*)³⁾이라는 책을 번역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책은 한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를 택하고 남은 의미들은 괄호에 넣어서 참고하게 하는 식으로 번역된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이미 내가 성서공회 번역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청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2) 기독교출판사인 '생명의 말씀사'를 세운 미국 선교사.

3) 미국의 존더반(Zondervan) 출판사에서 1958년에 처음으로 펴낸 신약성서. 원문 번역을 넘어 서서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줄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중괄호와 소괄호에 넣어 제공한다.

종로 2가 대한성서공회 2층에 사무실을 정하고 정용섭 목사를 서기로 삼고 일을 시작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한글 타자기도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나는 대학 노트에다 손으로 적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지저분한 습작을 정 목사에게 넘기면 그는 타자기로 그 복잡한 나의 글을 펴서 찍어내어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배부했다. 위원장은 한국신학대학 교수 전경연이었고, 위원은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김철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이상호, 서울신학대학 교수 박상증(잠시 후에 사퇴)이었다.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나의 원고를 다듬어 나갔다. 국어 담당으로 처음에는 한갑수 선생이 참여했고, 후에 숙명여자대학 교수 임한영, 연세대학교 교수 박영준, 문인 석용원, 김우규 등이 문장을 다듬었다. 최종 단계에서 김재준 교수가 가담한 적도 있다.

나는 초역을 담당하면서 번역의 원칙을 세워야만 했다. 무원칙으로 마구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우선 (1) 새 말로 번역하자는 것이었다. (2) 다음은 예수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선한문(鮮漢文)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인자(人子)라는 글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인자라는 한글만 읽으면 그 뜻을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원어의 뜻을 살려서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3) 예수님의 말씀을 통상인이 쓰는 보통 말로 표시하자는 것이었다. 즉 일괄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하셨다고 보아 그렇게 표현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이 기독교보에 게재되자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나의 제안에 극력 반대하였고, 마산 문창교회 담임목사였던 김 아무개 목사가 주축이 되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교수하는 일을 정지시켰다. 나를 신신학자라고 하고 위험인물로 낙인찍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약 1년여 장로회신학대학 교단에 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수가 부족한 신학교이기에 다시 나를 불러내어 교단에 세웠다.

번역 과정에 웃지 못할 사건들도 있었다. 초역자는 전문적으로 번역에 몰두하며 여러 사전이나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옳은 번역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월요일마다 모이는 위원들은 집에서 연구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즉흥적으로 그들이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하여 비평한다. 그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위원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은 다수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구약학도 어느 정도 공부한 입장에서 포괄적인 관찰을 해서 판단하였는데, 다른

위원들은 신약학만을 공부한 입장에서 좁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함으로 내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 위원들은 다수이다 보니, 결국 다수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약 4년 동안에 신약성경 초역을 마쳤고 위원회 작업이 약 반년여 더 진행되어 끝났다. 그 후에 교단장들의 모임과 문장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서 1967년에 『신약전서 새번역』이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제안한 “사람의 아들”은 여전히 인자(人子)로 남게 되었고, 예수님의 어투도 종전의 것을 답습하고 말았다.

신약 새 번역 작업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천주교 교황청이 각 나라 교구에 그들의 기도서와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하고,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국 천주교 책임자들은 별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못 당황해 했다. 라틴말로 된 기도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성경을 원어에서 새로 번역하는 작업은 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 도움을 청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미 신약 새 번역까지 마친 상태였고, 구약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도 그런대로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천주교의 협조 요청을 쾌히 승낙하고 공동 작업을하기로 결정했다.

공동 작업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양측이 사용하는 용어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천주교가 사용해 오던 천주(天主)를 택할 것인가, 개신교가 사용하는 “하나님”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제 3의 것을 찾을 것인가? 의논 끝에 “하느님”으로하기로 합의했다. 개신교는 글자의 한 획을 양보한 것이고 천주교는 완전히 양보한 것이다. 다음으로 양 교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는 그대로 쓰고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어의 발음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일을 시작했다.

공동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개신교의 힘에 의지하는 상황이었다. 구약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천주교가 내놓을 학자가 없었다. 선종완 신부가 대표로 나오고, 개신교에서는 문익환 교수와 곽노순 교수를 비롯하여 몇몇 구약학자가 발탁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선종완 신부와 문익환 교수와 곽노순 교수 3명이 전담하는 작업이 되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양도 많지만, 새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공동번역 신약성서』의 경우는 구약의 경우와는 많이 달랐다. 이미 『새번역 신약전서』가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는 일과 약간의

변경이면 족하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다. 우선 천주교에는 신약학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교리를 가르치는 백민관 신부와 김창렬 신부, 라틴어 교수인 허창덕 신부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그들은 라틴어 번역과 불어 번역을 참고하며 의견을 낼 수 있었다. 개신교 측에서는 이미 초역을 맡았던 나 박창환이 원어 성경을 들고, 그 밖에는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김진만(성공회 소속)과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이근섭(감리교 소속) 교수가 함께했다. 그리고 총 서기로 성서공회를 대표한 정용섭 목사가 수고했다. 주로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천주교 신학교 백민관 신부 사무실에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경북 왜관에 있는 베네딕틴 수도원,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등에서도 작업을 했다.

『공동번역』의 특색은 번역의 원칙을 달리 했다는 점이다. 대만 타이중(臺中) 동해(東海) 대학에서 열렸던 성경번역자 세미나에 우리 번역 팀이 같이 가서 나이다(Eugene Nida)라는 학자의 강의를 듣고, 그가 주장하는 원칙 즉 의미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을 찾아서 옮겨야 한다는 원칙을 배웠다. 즉 자구역(字句譯)이 아니라 의역(意譯)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글 『공동번역』 성경은 자구역이 아니라 의역이어서 독자가 쉽게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공동번역 신약성서』는 2년의 작업으로 끝났다. 그리하여 1971년 봄 부활절에 인쇄되었다. 초판 30,000권이 단번에 다 팔려나갔다. 그 대부분을 천주교 교인들이 샀다고 한다. 그만큼 천주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굽주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천주교의 교인수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공동번역』이 나온 후에 그들이 성경공부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공동번역 신약성서』가 나오는 것을 본 후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3년 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다.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성서공회가 나를 불렀다. 신약 공동번역이 항간에 나돌자 문장이 서툴다는 여론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시인에게 맡겨 문장을 다듬게 해서 이제 다시 인쇄하려는 참이라고 하면서, 그 수정본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 시인이 문장을 다듬는 가운데 원문의 뜻에서 벗어나는 글로 바꾼 부분이 너무도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듬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문장가에게 보내고 또 다시 검토하고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릴 것이기에, 나의 선에서 끝나도록 전권을 가지고 수정작업을 했다. 신구약 『공동번역』이 1977년에 완성되었다. 그런데 “성경”이라 하지 않고 “성서”라 이름한 것이 자못 아쉽다. 이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

오신 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⁴⁾

2001년에 나는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 학장 직(職) 5년의 사역(使役)을 끝내고 시카고로 돌아오면서 몇 가지 계획을 구상했다. 그 때 내 나이가 75세이였기에,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남은 시간에, 아직 못 다한 나의 사사로운 계획들을 이루어보려는 것이었다. 그 첫째가 나의 신약성경 사역(私譯)을 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노력 끝에 탈고를 하고, 우여곡절 끝에 코리아엠마오 출판사를 통하여 2007년 5월에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손을 보아야 할 것이 있어서 다시 최춘혁 목사가 다듬어 2008년 5월에 재판을 내었다. 그 후에 나의 제자들이, 한들출판사 정덕주 목사를 통하여 나의 글 전집 10권을 내면서 그 첫 권으로 나의 신약성경 사역을 다시 다듬어서 실었다. 그것이 2012년 6월이었다. 성경을 출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제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은 제한되어 있어서 결코 완전한 것을 만들 수는 없는 법이다. 한 세대에 한 번씩은 성경의 개역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언어도 변하고 인간과 그 문화가 다 같이 변하기 때문이다.

4) 글 다듬은 이의 주: ‘성경’과 ‘성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모두 함께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모리슨역 『신천성서』(神天聖書)(신약 1814년, 구약 1823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성서’ 또는 ‘구신약전서’ 등이 널리 사용되었고, 1904년 이후 화합본(Union Version)에서 ‘성경’을 책명으로 사용하면서 ‘성경’이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자문화권에서 성서 사업을 주도하던 ‘미국성서공회’ ‘영국성서공회’ 등은 ‘성서’라는 이름을 공회의 공식 이름에 써 왔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성경의 책명으로는 ‘신약전서’, ‘구약전서’, ‘구신약전서’ (또는 ‘신구약전서’), ‘성경전서’라는 이름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써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구어역 성서』(1955)가 출간된 이후 ‘성서’가 널리 쓰이고 있다.